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한 인디언과 유대인 양육법 기초연구

김일부*

요 약

본 연구는 유대인 양육법의 특징과 인디언 양육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각 변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전인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양육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가정’이며 유대인의 가정은 아버지 중심, 인디언의 가정은 어머니 중심이었다. 외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교육제도’이며 유대인의 교육제도는 5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은 부모와의 합의하에 일반학교와 종교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율적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인디언의 교육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따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기술 대학), 대학(College) 그리고 대학원(Professional School)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며 장학금과 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교육의 천국’이라 불리었지만 그들의 사회에 적용되지 못했다. 거시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종교”였으며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파의 네 개로 구분, 이 중 유대교가 가장 많으며 인디언의 종교는 자연과 동물 등을 신성히 여기는 토테미즘과 유사한 방식을 보였다. 시간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역사적 사건”이며 유대인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인디언은 유럽인의 대륙침략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주제어: 인디언 양육법, 유대인 양육법, 생태학적 체계이론

논문 제출일 : 2009. 10. 20 최종 심사일 : 2009. 11. 16

* 세립 어린이집 원장

103-1004 Samsung Raemian Apt. Guro 3(sam)-dong Guro-gu Seoul (Seoul 152-767 Korea)

E-mail: blind3@nate.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잘 사는 법, 건강히 사는 법에 관련하여 ‘웰빙’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후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들어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기에 급급했던 그 시절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는 제대로 된 먹거리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건강히 살기 위한 각종 운동기구와 건강보조제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서울에서의 그럴싸한 직장을 버리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화학조미료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은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 더 나아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웰빙’ 열풍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먹거리에 관련된 것도 그러할 진데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야 두 말할 나위없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딸 가진 부모들이 “무서워서 딸 못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성공을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머리에 지식을 채워 넣지만 마음속에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EBS에서 방영되었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한 ‘아이의 사생활’(EBS제작팀, 2009b)에서 문용린 교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아마 도덕성 일 것이며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덕적이고 바른 인성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이전부터 무엇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 원칙을 정해 일관성 있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부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발달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박혜원, 2003; 권순명, 1993; 최경순, 1991; 강란혜, 1990; 권옥자, 1987; 김지신, 1985). 긍정적인 양육행동수준을 지닌 부모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지닌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높으며 긍정적, 애정적, 합리적 양육행동을 취할 때 아동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정정임, 2009). 현재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아동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와 가정환경에서 찾아내어 부모의 변화와 가정환경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확립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부모 양육법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양육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올바른 양육법과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대인의 양육법을 비롯하여 독일, 핀란드, 스파르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인디언의 양육법까지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유대인의 양육법이다.

유대인의 경전 중 하나인 탈무드는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동화책 형태로도 제작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이렇게 유대인 양육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유안진 교수는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아 온 2천년 동안 사회적으로 그들의 발전과 성공의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봉쇄와 패배를 이용하여 지식을 추구하고 자기세계를 찾아 확장시킨 나머지 배척당하고 고립당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보통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다만 부모의 가정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공하여 천재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하며 유대인의 양육법의 우수성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유안진, 2006). 실제로 미국의 전체 인구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인데 반해 미국 내의 유명한 대학 교수의 약 30%가 유대인이며 오늘날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 약 15%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전 세계 부모들이 이 유대인의 양육법을 주목할 만하다.

유대인 양육법의 우수성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인디언의 양육법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앞서 인식하기 시작하여 1960-70년대 환경 운동을 이끌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며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며 배우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고, 다시 되돌려주기 원한다. 사실 인디언들에게서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식을 얻기 전 가져야 할 사람으로써의 도리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존감, 거대한 자연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은 분명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술지 및 논문들을 비롯한 연구 자료들과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유대인 양육법의 특징과 인디언 양육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위체계별 변인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인적인 아동발달을 위한 양육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유대인 양육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인디언 양육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한 유대인과 인디언 양육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인디언은 미국 내 원조 아메리카인을 뜻하며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하는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전지나, 2005).

유대인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 민족적인 의미에서는 혈연 또는 개종을 통해 고대 히브리 민족의 후예가 된 자들을 말한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유대인이 다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및 과정

국내에 소개된 인디언에 관한 연구들은 1970년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인디언에 관련된 논문들의 대부분은 미국영어의 기원과 인디언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또는 디자인, 직물, 문화 등 예술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김명숙, 2005; 임우진, 2003; 송주경, 1996; 엄윤경, 1994). 인디언의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연구나 서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부족장들의 연설문이나 미국 역사를 통한 인디언의 역사기록이 전부이다. 본 연구는 연설문과 역사기록, 인터넷 자료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인디언의 양육법을 분석하였으며 유대인에 관련된 양육법은 1980년대 이후의 연구논문들과 학술지, 서적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유대인과 인디언의 양육법을 비교분석함에 있어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개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주장한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Urie)는 1917년 4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6세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뉴욕에 정착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 곳에서 정신 병리학자(임상 병리학자)로서 연구 책임자를 맡아 일했다. 그는 1938년, 코넬 대학교에서 음악과 심리학을 이중 전공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발달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42년, 미시간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시간 대학에서 심리학 조교로 일하기 전, 군대생활에서는 임상심리학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1948년에는 코넬대학에서 인간발달(심리)학과 가족(심리)학 분야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2005년 9월 뉴욕에서 생을 마감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과 가장 근접한 체계부터 광역의 체계까지 다섯 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이 다섯 가지 체계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개인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그 환경을 재구성하는 존재라고 보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호혜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고(이영 역, 1995) 아동은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계를 가진 사회집단 속에 중복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향력을 동시에 받기도 하고 반응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 외에 다른 사회체계 - 또래 집단, 지역사회, 정치, 문화, 학교- 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Nichols & Schwartz, 1998) 최근 브론펜브레너의 연구(1995)에서는 그의 이론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강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생태적, 환경적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다섯 가지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정옥분, 2004; Bronfenbrenner,

Urie., 1995)

1) 미시체계(microsystem)

아동이 중심에 있을 때, 아동과 가장 근접한 환경이 미시체계이다. 브론펜브레너의 연구는 대부분이 미시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의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아동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나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근접해 있는 공원이나 도서관의 크기 등이 이에 속한다. 미시체계 안에서는 아동과 가족, 친구, 교사 등의 사회인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아동이 성장해 가면서 미시체계 또한 변화하게 된다.

2) 중간체계(mesosystem)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 교사간의 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체계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할수록 아동의 발달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아동발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지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발달론자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3) 외체계(exosystem)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교육위원회, 대중매체, 직업세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따른 영향, 정부의 아동관련 시책 등은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삶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외체계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이다.

4) 거시체계(macrosystem)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체계에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것이 거시체계이다.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Elder & Caspi, 1988) 거시체계는 사회관습과 유행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게 하며 미(美)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5) 시간체계(Chronosystem)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를 말한다. 번역서에서 브론펜브레너의 체계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정옥분은 그의 저서에서 시간체계를 포함시켰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체계가 횡적인 연구에 도움을 준다면, 시간체계는 종적인 연구 즉 전 생애적 연구를 함에 있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2.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한 양육법의 비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체계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시체계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등이 이에 포함되며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부모와 형제의 관계, 부모와 아동의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 아동과 형제와의 관계 등이 속하기 때문에 아동이 거하는 ‘가정’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가 그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가정배경이나 가정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적과 성취도, 포부수준, 도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가정은 아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현주, 2007; 신재한, 2007; 김선희, 1995) 따라서 필자의 연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외체계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디언과 유대인의 교육제도를 비교 기준으로 한다. 교육제도는 아동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동의 사고와 직업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되기 시작하는 입학사정관 제도에 따라 학업성적과 입학학과와는 상관없는 특기와 재능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럴 경우 아동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결정하여 그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일관성 있는 태도로 임할 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능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에 치중했던 아이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거시체계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체계에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디언과 유대인의 종교를 비교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를 바탕으로 한 사상들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효나 예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 이와 같이 거시체계에 관련된 요소들은 아동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기초적인 토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체계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디언과 유대인의 역사적 사건을 비교 기준으로 한다. 아동의 전 생애에 걸친 개인적인 변화들 역시 포함되지만 개인적 요소들과 같은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역사적인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대인 양육법의 특징

1) 권위 있는 아버지와 특별한 어머니의 가정교육

유안진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모든 역사상의 위인들은 가정이 탄생시킨 위인들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우고 교육시킨 위인들이지, 학교가 길러낸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유

안진, 2006)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미 아이의 중요한 행동 특성들이 결정되며 학교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배움이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 실제로 그 지식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가정에서 배우게 되므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건립 전까지 방랑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지식이 그들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식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으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들을 유지해 줄 것이라 믿었다. 세계적으로 천재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로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키워주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들이 남달리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는 엄격하고 권위 있는 교사이며 주로 탈무드 등의 경전을 통한 규율과 종교 교육을 맡았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열렬한 애정을 보여주며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주는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이야기

유대인은 이야기가 생활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야기꾼이다. 이들 이야기에는 유머와 기지, 비애와 희극적인 요소가 넘쳤고, 종교적이면서 도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인간적이었다. 또, 이야기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의무였다.(유안진, 2006) 유대인들에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탈무드’인데 이 책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법률적 생활에 관한 교훈을 담은 책이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이 책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자라게 되며 부모들이 이 내용을 교육함에 있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이야기’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수백 수천가지가 될 것이며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생활 속에 경험으로 쌓이고 그 경험은 결국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

구약 성경의 거의 전부가 ‘이야기’이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흥미있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 극적 탈출에 성공한 이야기,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리는 엘다 골짜기의 싸움,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장사 삼손 등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얼마든지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역사는 배워진다. (방세영, 2004)

3) 종교- 하나님 그리고 예식과 절기

유대교는 현재의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종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는 종교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 늘 감사했다. 안식일에는 밥을 지을 수도 없었고 불붙이는 것도 금지될 정도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탈무드를 배우기 위해 또 다른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과 절기를 통해 참여와 경험을 배우며 그것들의 방법과 절차로 인해 상징교육을 훈련하여 추상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며 추상적인 사고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 내게 했다.

2. 인디언 양육법의 특징

1) 대지와 자연

인디언들은 타고난 자연 보호가들이다. 대지는 어머니라 여겼고 어떻게 대지와 공기를 사 고 팔 수 있느냐며 탄식하는 자들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소유가 아니었고 대지와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들에게서 얻은 것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나눔은 생활이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덕목 중 하나였다. 그러한 그들에게 유럽인들이 찾아와 “땅을 정복하겠다.” 하면 인디언들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애당초 그들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에 그들은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2)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 부족 어른들과 부모님을 통한 교육

인디언들은 수렵, 채집, 어로 등을 하며 그들의 생활을 유지했다. 따라서 위험이 닥칠 때 그들의 대처방안은 순전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었기에 부족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이 경험들을 늘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유대인의 이야기가 우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디언의 이야기는 자연환경 속에서의 체험에 의한 경험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상 이하다.

3) 특별한 이름

인디언들의 이름은 그들의 모습과 성격, 이상향을 반영하며 앉은 소, 느린 거북, 검은 매, 쳐다보는 말, 붉은 구름, 구르는 천둥 등과 같이 동물들이나 자연 속에서 자신과 부족의 이 름을 결정한다. 또, 이렇게 정해진 이름들이 그 뜻을 물려받기 위해 자손대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4) 공동체 생활중심

인디언들은 가족단위, 부족단위 생활을 하였는데 혹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아란 존재하지 않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모두가 자신의 가족이었다. 가난하고 늙은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자연에게서 얻은 것은 제일 먼저 부 족의 어른들에게 드렸다. 우리나라의 확대가족 제도가 그러했듯이 인디언들은 공동체 생활 을 통해 어른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들 생활의 기초라 생각했다.

3.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한 유대인과 인디언 양육법의 차이

1)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서의 비교- 가정

유대인 가정은 예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강했다. 유대인 사회는 부계사회이며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 속에 부모가 등장하면 반드시 아버지에 관련된 것들이 먼저 나온다. 아 버지의 권위는 자녀에게 있어 정신과 마음의 기둥이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조리 있는 인간

으로 만든다고 믿었다. 어머니 역시 남편을 지도자로서 존경하며 모든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한다. 아버지는 탈무드를 가르치는 엄한 교사였다면 어머니는 열렬한 애정을 표현하는 대상이다. 프루스트나 아인슈타인, 프로이트도 이러한 어머니의 열렬한 애정 밑에서 성장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넘치는 애정은 과보호 된 아이를 만든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의 특별한 재능과 개성, 독창적인 인격을 형성시킨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유안진 교수 역시 그의 저서 ‘위인과 천재는 어머니가 만든다’에서 유대인 어머니는 창조적 여신이라고 말했으며 자녀의 인격과 도덕성은 온전히 어머니의 행동이 그대로 투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풍속과 비슷하게 그들은 아들을 딸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성서에 나오는 장자의 명분과 같이 만아들의 권위를 높이 샀으며 그들을 잘 길러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고 탈무드에서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 또 경험과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엮은 종교적 지혜서가 탈무드이다. 이 이야기들은 흔히 우화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부모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또는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로 시작되는 많은 이야기들로 그 질문에 대답하곤 했다.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은 엄격한 아버지와 열렬한 애정을 보여주는 어머니 안에서 양육되었다. 그렇기에 지식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자존감 높으며 지혜롭고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 준 것이 바로 어머니이다. 아버지의 애정척도가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부장제나 엄모자모의 의미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며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며 가정의 중심에 아버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노신민, 2004). 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고(이미향, 2004)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낙관적일수록, 성취효능감과 사회효능감이 높아져 행복해지며 가족지지를 많이 받고 화목하며 경제적일수록 행복하다(허승연, 2009)는 연구 결과들은 유대인 가정의 우수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인디언 가정과 사회의 중심은 여성이었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고 인디언들이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데는 이런 여성 중심의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정록, 2003)

모호크 족의 여인 르레인 캐누는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은 여성이며 가르침 역시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고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구르는 천둥은 여성에 대한 큰 존경심을 표현하였으며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남성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성 역시 그와 못지않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다코타 족의 오히예사(찰스 이스트먼)는 대지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이며 누구도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어느 한 개인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반대했으며 오히려 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동등하게 그 힘을 나눠 갖는 것을 선택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함을 믿었고, 유럽인들보다 훨씬 많은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했다고 전한다. 이렇듯 인디언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위치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은 크게 자신의 부족과 다른 부족까지도 포함하여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혹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늙은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 뿐 아니라 부족 전체의 보살핌을 받았기에 고아란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부모를 공경했으며 평화를 믿었고 우주만물이 그들의 형제였다. 민주적인 사상과 평등, 형제애가 삶의 근본이었다. 인디언 아이들은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나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배웠다. “처음 가져온 수확은 부족의 어른들에게 드렸으며 칭찬을 받으면 아이는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어린 묘목처럼 쭉쭉 자랄 수 있게 되었다.”고 살리쉬 족의 산비둘기는 이야기 하였다.

인디언 가정의 아이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 여기며 공동체 생활을 중시했고 대지 위의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들은 늘 필요한 만큼만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첫 열매나 첫 수확은 대지에 돌리는 의미로 거두지 않았다. 부모를 공경했고 나눔을 통한 사랑을 배웠으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늘 깨달음을 얻었다. 문답형식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상상력을 증진시켰고 조부모와 부모의 경험들을 매일 이야기 해줌을 통해 조상의 전설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신뢰가 높으며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행복하다고 설명하며 집단주의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허승연, 2009). 가족형태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혜경, 2001; 연미희, 1998; 김영심, 1990)들은 본 연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확대가족이 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 정서적 발달에 유리하다(김득주, 1996; 유안진, 1985; 방인숙, 1993)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인디언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그들의 가족형태가 유리하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외체계에서의 비교- 교육제도

유대인 학교 교육은 남녀공학이 원칙이며, 초등학교는 8년, 중등학교는 4년 과정이 많았으나 의회는 학교제도의 개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선 8개의 도시와 42개의 지방구에서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였다. 초등교육은 현재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재정은 국가와 지방교육당국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이 의무교육에 취학하지 못한 사람은 특별학급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혁법안에 의해 16세까지의 무상의무교육이 규정되었으며, 앞으로 의무교육 연령은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일반학교나 종교학교에 취학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총학생의 14%는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29%는 종교학교에, 7%는 사립학교에 진학한다. 학제 개혁법안이 실시되자, 이들 종교학교는 종교교육이 경감되는 것을 이이유로 들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인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공식적 교육기준이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교과과정의 25%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왔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주장이다. 자율적 교육 방침으로 이제 학교가 교육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제도의 진행은 그 가정교육에 몰두하는 유대인 부모들이 유대인 교사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며, 자율적 교육방침을 통해 그것을 이루었다고 여긴다.

인디언의 교육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따르는데, 주로 공립학교 중심으로 되어있는 미

국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차이가 없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이라 부르는 것을 유치원 과정(Kindergarten)부터 12학년 까지를 통칭해 부르는 것과 고등학문의 중심이 대학이 아닌 대학원(Professional School)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인 미국의 교육제도를 구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기술 대학), 대학(College) 그리고 대학원(Professional School)로 구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나눈다면 크게 공립(주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어 공립학교의 제도를 이용하면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국립) 대학에 가면 성적과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하는 각종 Financial Aid와 Grant를 보조받아 대부분의 학비를 충당할 수 있어 가히 교육의 천국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미국 내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들에게는 이 교육제도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현대 사회의 학교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으며 오직 그들의 스승인 대지와 자연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교육은 결코 일정 기간에만 국한되고 몇 학기가 지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련된 훈련이며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이 가진 능력의 개발과 권리를 깨닫게 하는 데 진정한 의미를 두었고 이것은 어떠한 규율이나 제도 안에서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개인에게 진정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교육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실 안에 가둬 두거나 쓸데없는 경쟁심을 유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으스스대지도 않았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위협이나 처벌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교육제도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인디언 모두 국가의 책임하에 무상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율적이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종교교육을 중시하였음을 교육제도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을 더 신뢰하고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인디언들에게는 교육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의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육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사회에 적용되지 못했다. 물론 인디언 학교 역시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경쟁체제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야하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서열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인디언 사회에서 자연을 스승삼아 자라게 된 아이들은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방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여 유발될 수 있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3) 거시체계에서의 비교-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파의 네 개로 구분되는데 각 종교별로 성지와 성소가 관리 된다. 유대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종교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교육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하였으며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그의 은총을 소망했다. 탈무드 역시 유대인의 종교적, 도덕적, 법률적 교훈을 책으로 엮은 것이며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토라와 율법서와 성문서, 예언서를 포함한 타나크도 유대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뽑히고 있다. 유대교는 십계명 등을 포함하여 유대인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

부터 그것을 지키게 하였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유교 사상 안에서 효와 예를 중시했던 우리나라와 같이 유대교 안에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문화와 사상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 유대교에 근거한 기독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의 자아존중감은 비기독교인 아동에 비해 높고 그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아동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태도를 가져온다. 또, 기독교 아동이 비기독교 아동보다 책임성과 사교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종교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김희숙, 2008). 아동이 기독교인일수록, 부모가 기독교인일수록 도덕적 판단수준이 높으며 비기독교인 아동에 비해서도 판단수준이 높다(김선자, 1993)는 연구결과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리더십, 도덕적 판단수준과 적극적 인생태도, 책임성과 사교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인디언 노인은 “우리 인디언들은 예수가 말한 단순한 원칙들을 늘 지키며 살아왔다. 그가 인디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대교의 종교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모든 종교는 그 자체의 성서를 가지고 있는데 인디언들의 성서는 시, 역사, 예언, 격언, 민간 설화 등이 뒤섞여 있으며, 이들이 가진 문학 자체가 성서에 해당한다. 경외하는 대상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유대교와는 달리 자연과 동물 등을 신성히 여기는 토테미즘과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 다코타 족의 창조 신화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창조주의 역할을 했고, 지구는 생명을 잉태해 동식물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또, 쇼니 족 예언자인 텐스콰타와는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정령이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돌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구체적 존재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디언들은 신을 발견하는 가장 순수한 장소로 자연을 선택했고 그 위대한 정령 앞에 넘치는 경외심을 표현하였다. 인디언들은 이러한 토테미즘에 기반한 종교적 행위 또는 사고를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감사와 자연의 소중함, 소유와 무소유, 나눔 등을 배워나갈 것이다. 인디언의 종교가 유대교의 종교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상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섬긴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특별히 자연에 대한 위대함과 존경, 경외심을 강조함을 통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4) 시간체계에서의 비교- 역사적 사건들

유대인의 아동에게 영향을 주었을 시간체계로서의 역사적 사건은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나치 정부는 유럽의 유대인 사회를 말살하려는 세부적인 계획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계획 아래 그들은 15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했다. 나치 독일 군대가 유럽을 휩쓸 때 유대인들은 잔인한 박해 아래 온갖 고통과 굴욕을 받았으며 유대인 거리로 내몰려 그곳에서 산발적인 무장저항을 시도하였으나 더욱 거센 탄압을 받았다. 유대인 거리로부터 수용소로 옮겨져서 무차별 사격을 받았으며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되었다.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살에서 벗어나 몇몇은 다른 나라로 가고 몇몇은 게릴라로서 살아남았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비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숨었다. 결국,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유대인 사회를 구성한 약 9백만 명의 인구 중 전쟁 전에 유럽으로 떠난 사람들을 포함하여 3분의 1만이 살아남았다. 전쟁 후 영국은 이 땅에 와서 정착하는 유대인의 수를 더욱 제한하였다. 유대인 사회는 이에 대해 폭 넓은 '불법 이민'활동 단체를

조직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약 5천 명의 난민들이 비밀리에, 대부분 위험한 경로를 택해 이 땅에 들어왔다. 영국은 해안을 봉쇄하고 국경 순찰대를 만들어 난민들이 이 땅에 도착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수용소에 포로로 가두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600만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보존하며 유대인 구출을 위해 힘쓴 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인 야드 바셈을 1950년 건립하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지속성에 관한 논문(안현주, 2006)에서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반세기 동안 금기시 되어 온 이유에 대해 규명하고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개인적 비극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지속성을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억압과 통제, 일상의 파괴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중 학살이 가져온 일상의 파괴에서는 학살이 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해체하고 대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며 경제적 궁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학살의 공포에 시달리게되며 학살의 공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무관심, 무소신, 무원칙의 처세술을 익히게 되며 자기 검열의 일상화를 실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대인에게 그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던 사건은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민족적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여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찾게 했을 것이며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한 그들만의 최선의 예방책 일 것이다.

인디언의 역사 중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손꼽히는 것은 유럽인들의 대륙침략이다. 서구 문명사를 뒤집으면 인디언의 멸망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유럽인들에게 짓밟혀왔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기원전 2만 3천년 경부터 인류가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으며 역사가들은 백인이 도래하기 이전의 이들 북미 인디언의 역사와 문화를 매우 정체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그들에게 변화와 발전을 선물한 것이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했다.(이영호, 2000) 하지만 인디언의 입장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지를 빼앗아간 ‘적’임에 틀림없었다. 미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인디언들의 땅을 다른 땅들과 교환하는 형식의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결국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들이 보호구역이 되어버리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침략당한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일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지키는 것, 부족간, 가족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일과 그들의 정신과 사상을 버리지 않는 것, 부족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내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땅에서 건재한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유대인과 인디언의 양육법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의 비교기준은 ‘가정’이었으며 유대인 가정은 가부장적 아버지와 자녀를 열렬히 지지하는 어머니를 통한 가정교육 중심으로 유대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종교교육을 비롯한 생활규범과 체계, 사상 등을 배웠고 어머니를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개발하였다. 엄한 아버지는 때때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를 되짚어 보면 권위적인 아버지가 자녀의 정신적 기둥이 됨을 알 수 있다. 열렬한 지지를 보이는 어머니는 항상 격려와 칭찬을 통해 아이들을 독려한다. 잘못을 감싸주려고만 하는 ‘과잉보호’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만을 보호하려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 될 것이다.

인디언의 가정은 표면적으로는 여성 중심이었다. 가정에 속한 대부분의 일들에 대한 결정은 여성이 했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 역시 어머니가 해야 할 일들이었다. 아버지를 포함한 남성들은 “대지는 어머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의 숭고함을 표현, 인정했으며 유럽인들에 비하여 많은 것들을 여성에게 부여했다. 또, 인디언들은 부족 공동체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았다. 그에 따라 조부모와 혈연관계 또는 같은 부족사람들끼리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통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며 공동체 내에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를 넘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의 분열된 가정의 형태들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심리적 문제와 노인문제 등은 인디언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교육제도’였으며 유대인의 교육제도는 5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은 부모와의 합의하에 일반학교와 종교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율적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자율적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고는 하나, 유대인들의 부모가 유대인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인디언의 교육제도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따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기술대학), 대학(College) 그리고 대학원(Professional School)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며 장학금과 지원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교육의 천국’이라 불린다. 인디언 학교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교육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연을 스승삼아 자연을 통해 배움을 얻기 때문에 교육제도 자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거시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종교’였으며 유대인의 종교는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유대교였으며 인디언의 종교는 자연과 동물 등을 신성히 여기는 토테미즘과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달랐지만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인식하였기에 그들은 겸손할 수 있었다. 유대인의 경우 유대교의 경전을 통해 삶의 규율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과제가 되었으며 학교교육의 절반이상이 종교교육일 정도로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인디언의 경우 자연에 대한 숭고함을 통해 무소유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였는데 그러한 인디언의 생각이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시간체계에서의 비교기준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유대인은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배움을 통한 지식과 생활에서 깨닫는 지혜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이 역사적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디언은 유럽인들의 대륙침략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의 땅이 보호구역이 되었다. 인디언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겼지만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빼앗겼다 여기지 않았다. 오직 대지와 자연을 보존하고자 했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도왔으며 자녀들에게 그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물질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면 그뿐이라 여기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서로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언과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을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한 민족적 특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보고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유대인의 양육법은 종교적 접근이나 영재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대다수였고(강신권, 2007; 박은혜, 2007; 현용수, 2006; 김성혜, 1998 등) 인디언의 양육법에 대한 자료들은 부족장들의 연설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섯 가지 하위영역의 변인들 중 한 가지씩만을 비교, 연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체계별 하위영역의 변인들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계순 외(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 공경혜(2003).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주(1996). 확대가족 자녀와 핵가족 자녀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자(1993).기독교학생과 비기독교학생간의 도덕성 발달수준의 비교 연구 : 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1995).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가정 교육 환경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 6세 유치원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혜(1996).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방법 모색; 유대인의 자녀교육방법 고찰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심(1990). 가족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7).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이 초등학교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1).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08). 기독교인 아동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신민(2004).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관련변인 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혜(2005).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디 브라운(2002).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나무 심는 사람.
- 루스실로외(2008). **유대식 EQ 육아법**. 한글.
- 류시화(2003).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 박은혜(2007). 유대인 가정교육에서 비취 본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법 모색.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세영(2004). 유대인 가정교육에 근거한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적용에 관한연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인숙(1993). 가족형태가 유아의 사회정서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숙(2008).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 내 영아 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브론펜브레너(1995). **인간발달 생태학**. 교육과학사.
- 서정록(2003). **지금은 자연과 대화할 때**. 열린 책들.
- 신재한(2007). 초등학교생의 가정환경, 정서지능, 창의성, 학업성적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제38권. 81-102
- 안현주(2006). 역사학습을 통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개념화. 한국교원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111-122
- 오히예사(2004). **인디언의 영혼**. 오래된 미래.
- 유안진(1985). **유아 환경론**. 창지사.
- _____ (2006). **위인과 천재는 어머니가 만든다**. 다시.
- 윤종희(1991). 탁아의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아동연구 제 6권, 33~51
- 이소희(2007). **아동복지론**. 학현사.
- 이영효(2000). 인디언의 과거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북미연구제 6권, 81-106
- 전수연(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형태에 따른 행동 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대련(2003). 다문화권의 전통적 양육방식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제 8권, 131-143
- 정옥분(2006). **영유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행동 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임(2009). 가정환경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찰스만(2005). **인디언**. 오래된 미래.
- 한혜은(1997). 유대인의 가정교육 형식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승연(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금옥(2003). 어머니 양육 아동과 타인 양육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EBS제작팀(2009a). **아기성장 보고서**. 예담.
- EBS제작팀(2009b). **아이의 사생활**. 지식채널
- J.G. 니이하트(2002).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 두레.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 30-42
- Bronfenbrenner, Urie.(1975).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insdale, Ill., Dryden Press
- _____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 Moen, G. H. Elder, & K. Luscher(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siation.
- Elder,G. H. Jr., & Caspi, A. (1988).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n emerging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In N. Bolger, A. Caspi, G. Downey, &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mons, R. A. & Shelton, C. M. (2005).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459~471).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이스라엘 문화원. <http://www.iscc.co.kr>

Abstract

Basic research for the rearing of Jewish and Indians child Based on Ecological Systems Theory.

Kim, il-bu

This stud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ring of Jewish and Indians child.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other variables basing on Bronfenbrenner 's ecological systems theor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method for alternative ways in child rearing and holistic child development for the futur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microsystem and mesosystem, the differentiating standard is "home". And the father was the center for the Jewish family center, whereas it was mother for the Indian family.

The main differentiating standard in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was 'educational system' and in Jewish educational system is free compulsory education from the age of 5 to 16. The child will choose to go to regular school or religious schools with consent with the parent and the schools are operated under its self regulatory education.

The Indian educational system follows that of the US's education system and it is divided b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echnical college, college and professional school.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is up to high school and it was called the "education heaven" as the scholarship support was advanced in US, however, this did not adjust to the Indian education system. In the macrosystem, the differentiating standard was the religion and the Jewish religions are divided by Judaism, Mohammedanism, Christian, Druze. Out of these, Judaism is the largest and the Indian religion has shown similarity with the Totemism which worships nature and animals. In chronological differentiation was "historical incident" and the Jewish records the holocaust, and the Indians records the invasion of Europe as the most important historical incident.

Key Words : The rearing of Jewish child, The rearing of Indians child, Ecological systems theory